

마포구공단, 취약계층 찾아 '착착 해결해드림'...생활안전 기술봉사

✎ 김혜란 기자 | ㉠ 승인 2026.07.16 22:33

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전 지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문 기술봉사단 '착착 해결해드림'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민생 밀착형 상생 봉사활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문 기술봉사단 '착착 해결해드림'이 방충망 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황진택 경영본부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근 민생 밀착형 상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구민 중심의 상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과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춘 직원들로 전문 기술봉사단 '착착 해결해드림'을 구성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가구를 방문했다. 봉사단은 노후 전열기기와 등기구 교체, 누전차단기 점검, 수전 교체 등 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점검·정비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공단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시설관리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진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이 보유한 시설관리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경영 혁신과 민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기자